

# 청약 로또 옛말...부동산 찬바람에 너도나도 '청약통장' 해지

### 1월 청약통장 가입자 광주 78만3162명...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 지난해 정점 6·8월 대비 광주 2만2351명·전남 2만3433명 감소

직장인 정모(40)씨는 대학생 때부터 들어왔던 청약통장을 해지할 지 고민하고 있다. 20년째 유지하고 있는 그의 청약통장에는 3000만원의 목돈이 들어있다고 한다.

정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청약이 20번 넘게 날아갔어도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1인 가구라 청약 가점도 낮은 데다, 당첨되더라도 분양가가 비싸고 금리도 높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에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돈

을 묶어두는 것이 손해일 것 같아 해지할 지 고민된다"고 털어놓았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분양시장이 깊은 침체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집값 급등기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아이템'로 꼽혔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전남의 청약통장 예치금도 작년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2200억원이 넘게 빠졌고, 가입자 수의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광주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는 78만3162명으로, 전월(78만7197명) 대비 0.51%(4035명) 감소했다.

앞서 2010년 7월 기준 11만9909명이던 광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는 10년 뒤인 2020년 76만 416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79만 241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1000명 이상씩 증가하면서 6월 80만5513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7월부터 80만5513명으로 124명이 줄면서 2009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작년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6월과 비교하면 올해 1월 2.77%(2만2351명)이 줄어든 셈이다. 가입자 수가 빠지면서 청약통장 예치금도 쏙 빠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달 광주 청약통장 예치금은 2조5222억원으로, 예치금 금액이 가장 많았던 작년 7월(2조6723억원)에 비해 1501억원(5.61%)이 감소했다.

이런 사정은 전남지역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 달 전남의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달(67만 8686명) 대비 0.71%(4814명) 감소한 67만3872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8월(69만7305명)과 비교해서는 3.36%(2만3433명)가 감소했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도 가장 많았던 지난해 6월 2조1305억원에서 올해 1월 1조9590억원으로 1715억원(8.05%)이나 줄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코스로 인식

됐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집값 상승 폭이 큰 탓에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거나, 입주한 이후에도 곧장 주택을 매매해 차익을 얻으려는 심리가 더해진 것도 주택청약 인기에 한몫했다.

그러나 있던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데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워낙 높아 주택을 처분해도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청약통장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워낙 분양시장이 어려운 탓에 청약에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 가점이 높으면 당첨 기회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길게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정기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지역 나눔활동 결의 정기총회

농협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최근 '2023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는 이날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결의하는 등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취약농가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이심점심 증식지원 사업'을 비롯해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봉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 다음 달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전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윤정숙 남광주농협 분회장이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윤 신임 회장은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 온기를 전파하는 나눔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 80% 지원

16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최대 3억2000만원 지원

전남도는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능형 스마트공장(고도화 단계) 구축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중소·중견 제조 기업이다.

후·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50%인 최대 2억원이고, 전남도는 기업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30%(최대 1억 2000만원)를 더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서류를 갖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공장은 공장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IT) 기술로 통합,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생산품 향

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30% 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2개 사에 머물렀던 참가 기업이 2019년 이후 4년간 661개 사로 늘어나는 등 매년 모집 경쟁률 평균 3대 1을 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고용 증가 2명, 매출증대 17.9%, 생산성 향상 29.4%, 품질 향상 52.3%, 원가 절감 29.0%, 납기 준수를 24.4% 향상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스마트공장 도입의 전환은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가 됐다"면서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건설업계 "획일적 층수제한 규제 폐지 환영"

####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준주거지역 용적률 개선도 필요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계가 광주시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3일 "광주시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기집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에서 고층건물의 난립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제정한 건축물높이 관리규정은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높이가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개선 방안에는 이런 규정을 폐지해 획일적인 규제를 벗어나 지역별 특

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의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개별법에 따라 40여 건의 가까운 심의를 거치는 동안 약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됐다. 사업 기간의 길어지면 시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 주택가격 안정과 역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광주시 민선7기에 시행됐던 규제 일변도의 불합리한 층수규제, 과도한 주택심의 제도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를 대신해 적극 반긴다"며 "다만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작용하고 있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와 준주거지역 용적률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신고가 거래 후 최소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 국토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거래 대상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이인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

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였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는데,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상배액)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